

협회소식



「도계장의 HACCP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워크숍 개최 “도계장의 합리적인 HACCP 추진방향” 주제발표 강연

본회(회장 김홍국)는 지난 6월 26일 경기도 분당소재 수의과학회관 대회의실에서 각 회사 도계 관계자와 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계장의 HACCP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원대학교 홍종해 교수는 「도계장의 합리적인 HACCP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도계장의 HACCP 전면시행을 1년 앞둔 상황에서 현안과제는 지정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하의 안정적인 관련정책 운영과 영세 중소작업장 적용의 현실적인 어려움 타개와 ‘농장에서 식탁까지’라는 개념의 확대적용”이라고 밝혔다. 이외 지정토론에서 농림부 가축위생과 이홍섭 사무관은 “도축장의 의무적용일정이 반드시 정상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제4차 이사회 및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축산물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 시행에 따른 본회 입장 농림부에 건의키로

본회(회장 김홍국)는 지난 6월 26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4차 이사회 및 통합경영분과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 시행에 따른 본회 입장정립 및 직원인사발령에 대해 논의했다.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 시행에 따른 본회 입장에 관해서는 첫째, 현재 안을 충분하게 검토한 후 안을 농림부에 제출 반영되도록 하며 둘째, 본회의 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의원 확보에 적극 나설 것이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수납기관이 공동으로 자조금 수납을 거부키로 했으며 셋째, 계열농가를 회원으로 영입하는데 대한 회원규정 개정 등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신규회원을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직원인사발령에 관해서는 이병동 상무서리를 전무로, 김

한웅 차장을 부장으로 승진발령을 하고 이사회 폐회후 발령장을 수여했다.

한편, 통합경영분과위원회에서는 매달 2회 개최됐던 통합경영분과위 소위원회를 격월로 개최기로 하는 안을 상정, 참석인원의 전원 찬성으로 결의됐으며, 닭고기 등급제 시범사업실시건에 대해서는 시기 및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연기기로 결의했다.

제5차 계열생산책임자 회의 개최

육계질병 및 수급정보 교환 등에 대해 논의

본회(회장 김홍국)는 지난 6월 26일 협회 회의실에서 제5차 계열생산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육계질병 및 수급정보, 회원사별 신용불량 농가 공동대처 방안, 양계협회 표준계약서 검토, 안정적인 병아리 공급을 위한 병아리 수급대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양계협회 표준계약서 건에 대해 현재 양계협회에서 8월중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니 일정이 확정되면 표준계약서 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하고 공청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기로 했다.

또한 안정적인 병아리 공급을 위한 병아리 수급대책에서는 단계계획으로 9월이나 10월경에 계약이 완료되는 일부 회원사의 물량을 협회에서 공동구매하는 방안에 대해 참여 가능한 회원사부터 실시기로 결정, 필요물량을 확인기로 했다.

긴급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육계 가격안정을 위해 국내산 닭고기 적극 홍보키로

본회(회장 김홍국)는 지난 7월 10일 대전 유성 소재 유성호텔에서 긴급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긴급 회의에서는 육계수급(가격안정) 긴급 대책 및 자조금법 추진 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육계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수입 닭고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간주, 협회에서 국내산 닭고기의 우수성 및 수입닭고기와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등의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차후 병아리 입식수수를 조절하여 생산량을 감소시키기로 하며 이의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다음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으며, 수매·비축은 회원사별 자체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자조금법 추진과 관련해서 계열농가의 회원영입문제는 자조금법이 본회에 불리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다시 논의하여 추진키로 했다. ☺

